

탐방 대한불교



대한불교는 6월3일 창립 5주년을 맞아 대전 용문사에서 기념법회 겸 전국모임을 가졌다.

연꽃케이크 만들며 전법발원

94년 제과인 10명이 창립 교도소·복지시설 정기위원

반아심경이나 무상계를 데코레이션한 생크림케이크, 연꽃이 활짝 핀 연꽃케이크 등 제과제빵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포교 일선에 나선 모임이 있다. 대한불교(회장 정관수)가 그 주인공. 94년 5월 창립 당시 '우리가 정말 해 낼 수 있을까'라는 10여명 회원들의 반신반의 속에 발족된 대한불교는 5년만에 제과인 모임으로서 인정받는 제과인들의 모임으로 자리잡았다. 처음엔 40명의 발기인이 대한불교 창립을 준비했으나 타종교인들의 방해와 질타로 증감하겠다는 인원이 10여명 안팎으로 줄면서 출범식 자체가 무산될 뻔 했다. 대한불교 회장 정관수 회장은 "속이 시키면 게 타들 한모금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회원간 돈독한 결속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대한불교는 창립 이후 출품 불교를 소재로 한 제품을 연구, 개발해 시중에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연꽃케이크를 비롯해 산채

나물을 이용한 산나물밥 고르케, 산나물밥 브레드, 연꽃화과자, 연일스틱, 연근과자 등 10여 작품. 불경의 한 구절을 실크로린기법을 활용해 케이크 위에 데코레이션한 반아심경 케이크, 무상계 케이크는 제과업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대한불교는 제품의 기술을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대한불교의 선형 또한 제과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두달에 한번(딱수달) 넷째주 수요일이면 정성스럽게 빵과 음료, 과일 등을 장만해 천안교도소를 찾아가고 있다. 양로원, 고아원, 무의탁노인, 복지원,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관수 회장은 "불교의 창립은 포교의 방편이 되는 동시에 제과업계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한불교는 9월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천안교도소에 제과제빵과를 개설해 재소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psdo@buddhania.com)

직장법회 경전읽기로 가을맞이

무량회·정불회등 10여곳 강좌 열어 금강경·천수경·법화경 윤독 '인기'

얼대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무더위가 처서를 맞으면서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로 부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사색의 계절을 실감케 하고, 짙은 그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직장직능불자회는 올 가을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 '경전'을 통해 내실을 다질 전망이다. 경전공부부를 통해 신랄한 토대를 튼튼히 하는 직장직능불자회는 6개 통신불자회 외에 10여 곳에 이른다. 91년 창립 이래 스님과 불교학자를 초청해 <신가귀감> <화엄경> <장경> <반야심경> <천수경> <승만경> 등 10여 종의 경전을 공부해 온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좀더 깊이있는 경전공부를 위해 '무량 초청강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정부 과천종합공사 정불회(회장 강광수)는 지난 1년간의 기초교리 공부를 끝내고 평생불자회 김정호 회장으로부터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1시간30분동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다. 정불회는 내년 6~7월경 <법화경> 책거리를 계획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 습득 차원이 아닌 완전한 교리체계 확립이 목표'라고 귀담하는 금음결재원불자회(회장 조화재)도 매일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 귀가길에 신림동 관음정사에

들러 <금강경>을 공부한다. 또한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 다보빌딩(불교방송) 15층에서 <초보심자경문> 윤독법회를 열고 있다. 창립한 지 2개월된 경희의료원 불자회 경불회는 지난 7월 창립 직후부터 매주 화요일 한정법사에게 기초교리와 <천수경>에 대해 공부하며 초발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은행불자회(회장 윤주하)도 매일 셋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문서수법회 김태영지도법사와 문서포교인 정우 스님으로부터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각각 배우고 있다. (psdo@buddhania.com)



직장직능불자회는 경전을 읽으며 자기수행과 포교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한국은행불자회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경과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임진왜란 고혼 천도비 세우

부산 토향회 8월 25일 옥련선원에

부산 토향회(회장 김무조)는 8월25일 옥련선원에서 임진왜란희생영무주 망향천도비 제막식을 가졌다. 옥련선원 주지 현진스님, 신종관 수영구장장, 해군 3함대 김성만 사령관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제

막식은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과 영가천도의 순으로 치러졌다. 김무조 회장은 "천도비를 세우는 후손들의 노력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애국지사의 혼을 달래고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 백중맞이 수해희생자 천도재

봉은사(주지 원해)는 8월25일 백중맞이 행사로 '백중 49일 지장기도 및 수해희생자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대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영산재 형식의 천도재와 함께 육법공양, 영가천도를 위한 창작무(사진)가 펼쳐져 관심을 끌었다.



대불청 전안호 회장 취임법회

대한불교청년회 제20대 중앙회장 취임법회가 8월21일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포교원장 정연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와 대불청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임 전안호 회장은 "새로운 각오로 불청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화합, 단결하여 종단 발전과 나라의 형질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 어산작법학교 습의과 수료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교장 인묵스님) 제3기 습의과 수료식이 8월21일 중앙승가대학 강당에서 교육원장 일면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와 21명의 수료생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어산작법학교는 어산(법패)작법과 불전의식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7년 4월 문을 열었다.



중앙대 불교학생회 가족수련

중앙대학교불교학생동문회(회장 서정규 상용연수원 부장)는 8월21~22일 1박2일간 영일 사자산 관음사에서 동문 회원과 가족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수련회를 개최했다. 정진기도와 함께 동문가족간의 친목모임을 위해 시간을 보낸 중앙대불교학생동문회는 신앙취의처인 원찰 건립을 위해 현재 1천 3백만원의 기금을 모금해 놓고 있다.

금강경독송회 통합철야법회

10개지회 5백여명 4-5일 경주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4~5일 경주 두대마을에서 전국 금강경 수지독송 회원을 대상으로 철야통합법회를 봉행한다. 전국 10개 지회 5백여 명의 금강경독송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통합법회는 4일 밤 10시에 입재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철야로 봉행되며, 금강경 7독, 정진, 김재웅법사의 법문, 각 법당별 수행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법회에는 금강경독송회 회원이 아니어도 금강경 읽기에 관심이 있는 불자면 어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742-0172

한전반야회 사업소 연합법회

한전불자회(본사 반야회 회장 김명창)는 5일 직지사서 제1회 전국 사업소불자회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본사 한전반야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한전 12개 사업소 불자회원과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불자 등 3백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부 기법법회, 2부 만남의 장으로 진행된다. '만남의 장' 시간에는 전국 한전불자회연합회 구성에 대한 협의와 사업소간 상거래가 있을 예정이다. 출발은 5일 오전 6시30분 본사 앞에서 한다. 한전불자회는 지역별 순회모임을 가져 연합법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02)3456-5780

우리 모임에선

심우회 12사단 위문법회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5일 인제 12사단 훈련소 수계 및 위문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심우회는 12사단 군법사 상석스님과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장병들에게 빵과 음료, 떡, 내의 등을 전달한다. (02)578-2525

동산반야회 교리강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3개월 과정의 '불교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의 정의와 특징,

삼보살, 연기설, 반야심경 등을 강의한다. (02)732-1206

대구구도회 불불식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는 5일 오후4시 본회 법당에서 석가모니불 불불 집안법회를 봉행한다. (053)256-8589

BBS통신원 자선공연

불교방송교통통신원 수원시지부는 4일 오후3~7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불우장애인돕기 기금 마련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규규호씨의 사회로 김홍국, 김하정, 안정애, 너훈아, 라틴타악 등이 출연한다. (0331)258-2379

불교학의 새로운 만남

1999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본 학당은 동·서양의 철학사상으로부터 현대의 제반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원효 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심도 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올바르게 소중한 삶의 진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 각 과정별 법사학위 수여
● 수강자의 희망에 따른 자유선택
● 타 교육기관의 이수경력 인정
● 깨끗한 승질 · 편리한 통신평형

특전 대학(원) 재학생 중 선발전자, 서류전형 우수자는 장학혜택 있음.

99년 2학기 강의 시간표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Rows include 1교시 and 2교시 with subjects like 삼국유사, 선기공, 한국승려의 삶과 수행, 대승기신론 연구, 대승불교의 이해, 송찬우(중앙승가대), 정병조(본원원장), 정병조(본원원장), 서경III, 진성규(중앙대).

- 모집안내
- 입학자격/제한없음
- 모집과정/동장과정 00명
- 제출서류/입학원1부, 사진 3매
- 원서접수마감/8월30일
- 문의처/본 학당 사무국 3411-6167,8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3411-6167-8 Fax (02)3411-6169 (지하철3호선 대치역 ▶개포5단지 경기여고앞)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철(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은 신원철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한인 피문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철(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정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풍으로 늘 고생했고 특히 그 진풍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풍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풍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날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풍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매달되는 증상(○) 미식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땀이 심한 편이다
18 땀이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